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고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홍	의	변	하	튼	프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년	들	
	한	키	년	들	에	
!		며	들	에	게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에게 향하는 말들
그 거친 말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아닌 ' '
사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던
그 말씀에 시작을 이제 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귀에 딱딱게 들었지만
이제 서야 알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 찬 양 찬양팀
- 기 도 학생
- 축하와 환영..... 신도배전도사님
- 말 씀 !도배전도사님
(1 : 35 ~ 51)
- 헌 금 헌금위원
- 주기도문 다같이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소그룹이 방학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한 주만 기다리면
 일년을 같이 지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아름다운 것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귀에 익은
 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기쁜 만남을 기다립니다.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



개역한글

요한복음 1:35~51

- 35. ∴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 36. 이수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 37. ∴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 38. 이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이까 하니()
- 39. 이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쯤 되었더라
- 40. !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 41. !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 42. !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 43. !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 44. !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 45. !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 46. !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 47. 이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48. !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 49. !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50. 이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 51. ∴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NIV

John 1 : 35~51

35.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36.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37.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they followed Jesus.
38. Turning around,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What do you want?" They said, "Rabbi" (which means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39.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spent that day with him. It was about the tenth hour.
40.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41.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42.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43.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leave for Galilee. Finding Philip, he said to him, "Follow me."
44. Philip, like Andrew and Peter,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45.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s also wrote--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46.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47.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he said of him, "Here is a tru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48. "How do you know me?" Nathanael asked. Jesus answered, "I saw you while you were still under the fig tree before Philip called you."
49. Then Nathanael declared,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50. Jesus said, "You believe because I told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51. He then added, "I tell you the truth, you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당신을 향한 노래



글 구성 : 광야소리꾼 구자림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23 -

우리는

송 명 희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덟 번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계시니
우리는 부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항상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나 무서울 것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 선히 이루시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니

우린 아이들처럼

좋은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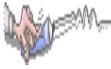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염려없고 두려움도 없이 맡기잖아요.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요.
모든걸 믿고 꿈의 나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어른이 되어도 주님을 향하는
내마음은 언제나 밝은 해처럼 그의 얼굴보면 웃음지어
요.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의 필요를 느낄때 언제나 말하잖아요.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가잖아요.

우리 어른이 되어도 주님을 향하는
내마음은 언제나 밝은 해처럼 그의 얼굴보면 웃음지어
요.





요즘 우리는 ...???

제목: ...
이름 : who... ()
글쓴날짜 : 2001-01-25 16:38:12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가지 기회에..
주님을 드러내기는 커녕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던 저의 모습..
마치 자신이 유명인이나 되는 양..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선 이 무대의 주인이 누구신데..
당연 주님이신데..
그곳에선 주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교만한 저의 모습에 그 분은 실망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다..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이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들..
아직 버리지 못한 교만의 모습들을..
이제는 정말 내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등부 게시판에 칩샷터라 D98 l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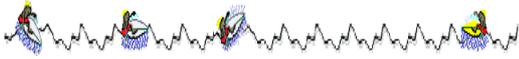
친구들이 많잖아 다 알잖아.
" .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3 ()
가난한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베탱처럼 높아진 마음은 메마르기때랍니다.
나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친구들의 말이 핑겨져나갈다면
생각해볼 일입니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말씀유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행적이 그리 화려하지 않았음을.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 화려하지 않았음을...
표현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가만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고등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
아... ..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가만 병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라는 것이 부끄러웁 따웁니다.
예수님이 머라 하십니까요...

친구들 보세요.....



- 고등부겨울캠프가 있습니다. 2 20 ~ 22 !
(, ,) 김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다. . 개인별 일정을 맞추어주세요.
- 파워스테이션 2 2 ~3 ! 초대권 나왔습니다.
2 2 , 3 6:00 .
2 2 , 2 3 ! 김효준 선생님 인도하십니다.
- 고등부예배가운데 OHP ! 담당할 친구를 찾습니다.
016-468-1915 / !

생님들 보세요.....



- 예배후 교사모임이 302 11 20 12 | 까지 있습니다.
- 파워스테이션 교사준비모임이 2 2 , 3 !
4 402 .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 도 배 전도사님
권 용 갑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정민정, , , 이은주